

# 노인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

송현동<sup>1</sup>, 김설희<sup>2</sup>, 김광환<sup>3</sup>, 구진희<sup>4\*</sup>

<sup>1</sup>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sup>2</sup>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sup>3</sup>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sup>4</sup>목원대학교 SW교양학부

##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funeral culture among the elderly

Hyeon-Dong Song<sup>1</sup>, Seol-Hee Kim<sup>2</sup>, Kwang-Hwan Kim<sup>3</sup>, Jin-Hee Ku<sup>4\*</sup>

<sup>1</sup>Department of Global Hotel & Tourism, Konya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onyang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sup>4</sup>Division of Software Liberal Arts, Mok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수시대, 웰에이징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설문은 한국갤럽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1:1 개별 면접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유효 연구대상자는 110명이며, 표본추출방법은 성/연령/소득수준/종교별 할당 추출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들의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을 선호( $p=0.034$ )하였다. 생전장례식은 소득수준( $p=0.004$ )과 종교유무( $p=0.020$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죽음에 대한 생각 유무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p=0.008$ )과 추모식을 진행할 경우 종교단체 귀의 의향( $p=0.004$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웰에이징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산업 방향과 정책 제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웰에이징, 화장, 생전장례, 추모식, 학제간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funeral culture industry suitable for the age of longevity and well-aging through a study on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funeral culture among the elderly. The survey of this paper was conducted by Gallup Korea, and the survey method was a 1:1 individual interview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to October 25, 2021, targeting 127 elderly people over the age of 65 living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The number of valid subjects was 110, and the sampling method used was allocation by sex/age/income level/religion. As a result of the study, as for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funeral culture among the elderly, women preferred cremation to men ( $p=0.034$ ).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level of income ( $p=0.004$ ) and religious status ( $p=0.020$ ) had an effect on funerals while alive.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oughts about dea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mbership of the mutual aid product ( $p=0.008$ ) and the intention to return to a religious organization ( $p=0.004$ ) when a memorial service was h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ly utilized in presenting the direction and policy of the funeral culture industry suitable for the age of well-aging in the future.

Key Words : Well-aging, Cremation, Funeral while alive, Memorial service,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C2A04092504)

\*Corresponding Author : Jin-Hee, Ku(jhku@mokwon.ac.kr)

Received March 23, 2022

Revised April 12, 2022

Accepted May 20, 2022

Published May 28, 2022

## 1. 서론

### 1.1 서론

한국 사회는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20.3%로 예상되면서 초고령 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은 83.5세로 20년 전보다 약 8년이 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년기(65세 이상)의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웰에이징 담론[1]을 한국사회에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웰다잉 문제[2]를 야기했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병기간이 늘어나면서 병원 침대,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를 발생하게 했다. 웰다잉의 핵심은 건강할 때 그리고 생전에, 죽음에 대한 준비와 장례문화 설계이다. 지난 2018년에 한국 최초로 말기 암환자가 자신의 ‘생전장례식’을 진행했다. 또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존엄한 죽음,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죽음문화, 장례문화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장수시대의 한국사회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는 유교적 죽음관[3]을 반영하여 지난 500여 년 동안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화장문화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약 90%(2021년도 기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지속 되면서 생전장례식, 호텔장례식, 장례보험, 이별여행 등 기존과는 다른 장례문화가 등장하였다[4, 5]. 독일의 경우에도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동반되면서 매장에서 화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6].

본 논문은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수시대, 웰에이징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2000년대 이후 급격한 화장률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고독사의 증가 등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웰다잉 저해 요인의 관련성에 관한 융합 연구”[7], “웰다잉 교육의 문화산업 확

산과 산업화 구축에 관한 연구[8], “장례문화 인식과 웰에이징의 실천과제 연구[9]”, “한국 장례문화에서 본 화장률의 지역별 남녀별 실증적 연구[10]”, “독일의 장례의식과 장묘문화 연구—근대 이후 장례문화의 변천사와 죽음의 현대적 의미를 중심으로[11]” 등이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확장시키고, 장례문화의 인식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으로 성별, 연령, 종교, 소득수준,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방법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화장률의 급격한 증가, 고독사의 증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실행 등 급변하는 한국의 죽음문화 변화와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장례문화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인들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는 코로나 19 이후 도래할 장례문화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19 이후 무빈소(빈소 없는 장례), 소규모장례식, 가족장, 예전에는 망설였던 부조 입금 통장 계좌 과지 등의 장례문화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갤럽에 의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연령별 할당 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110명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1:1 개별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 2.2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빈도분석), 성별, 가구소득별, 종교유무별, 죽음에 대한 생각 여부별 웰에이징 인지, 교육필요성, 선호하는 장례방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 생전 장례식에 대한 의견, 장례보험(상품) 가입의사, 웰에이징 준비과정에서 상조상품, 장례보험, 이별여행, 추모상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령별 장례문화 현황 파악, 영결식 및 생전장례식 의향, 추모식에 대한 의견에 대한 차이분석을 위해  $\chi^2$ -test를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50명(45.5%), 여자 60명(54.5%), 연령은 65~74세가 73명(66.4%), 75~84세 37명(33.6%)이다. 거주 지역은 서울 44명(40.0%), 경기 53명(48.2),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2명(92.7%), 종교 있음이 67명(60.9%),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인 34명(30.9%)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N, %

	N	%
<b>Gender</b>		
Male	50	45.5
Female	60	54.5
<b>Age</b>		
65~74(young old man)	73	66.4
75~84(middle aged)	37	33.6
<b>Residence</b>		
Seoul	44	40.0
Incheon	13	11.8
Gyeonggi	53	48.2
<b>Final Education</b>		
Uneducated	3	2.7
Less than high school	102	92.7
College graduate or higher	5	4.5
<b>Religion</b>		
Religion	67	60.9
No religion	43	39.1
<b>Whether to work</b>		
Practitioner	55	50.0
Unemployed	55	50.0
<b>Average monthly income (unit: ten thousand won)</b>		
100 or less	18	16.4
100-200 or less	30	27.3
200 - 300 or less	34	30.9
300 - 400 or less	20	18.2
Over 400	8	7.3

#### 3.2 성별에 따른 장례문화 인식

성별에 따른 장례문화 인식은 Table. 2와 같다. 장례문화 산업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장례방식에 대해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 $p=0.034$ )가 나타났다. 여성이 화장을 선호하는 분포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항목을 살펴보면, 아직 웰에이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95.5%)이 높았다. 상조상품은 가입하지 않은 비율(82.7%)이 높았으며,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측면(79.1)이 강하였고, 장례보험 가입 의사는 없는 편이 높게 나타났고, 웰에이징 준비과

정에 상조상품, 장례보험, 이별여행, 추모 상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79.1%)이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 3.3 연령별 장례문화 인식

연령별 장례문화 인식은 Table. 3과 같다. 장례문화 산업에 대해 연령별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장 선호 이유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 $p=0.012$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75~84세의 중노인들이 65~74세의 연소노인들 보다 '관리가 편리해서' 화장을 선호한다는 의견(56.5%)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적으로 매장 선호 이유를 살펴보면 선산(48.0%)이 있기 때문에 매장을 선호하고, 화장 후 유골 안치장소로는 납골당(47.1%)이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 연령별 장례문화산업 인식

연령별 장례문화산업 인식은 Table. 4와 같다. 영결식 및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에 대해 연령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장례 간소화 후 영결식 별도 진행 의향에 대해서는 같은 분포(50%)로 나타났다.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측면(79.1%)이 강하게 나타났다. 생전장례식에 대한 부정적 이유로는 죽음을 가볍게 여김(32.2%)이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전장례식 의향은 없다(83.6%), 가족 또는 친한 지인과 이별여행 의향도 없다(67.3%), 장례보험가입 의향은 보통(60.9%)이 높게 조사되었다.

#### 3.5 연령별 추모식에 대한 인식

연령별 추모식에 대한 인식은 Table. 5와 같다. 추모식에 대해 연령별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모식에 대해 전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종교단체에서 추모식을 진행할 경우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의견은 17.3%로 나타났으며, 추모 사업체에서 추모식 진행시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다소 있다(16.4%), 생전장례식, 이별여행상품, 추모식 등에 장례비용 지불 의향은 없다(83.6%), 상조상품, 장례보험, 이별 여행 추모 상품의 필요성은 필요하지 않다(79.1%)로 조사되었다.

Table 2. Recognition of funeral culture according to gender

unit : N, %

		Male		Female		Total		p-value
Well-aging recognized or not	Yes	3	6.0	2	3.3	5	4.5	0.504
	No	47	94.0	58	96.7	105	95.5	
Well-aging education need	Need	10	20.0	11	18.3	21	19.1	0.654
	Not need	25	50.0	26	43.3	51	46.4	
	Don't know	15	30.0	23	38.3	38	34.5	
Preferred funeral method	Burial	16	32.0	9	15.0	25	22.7	0.034
	Cremation	34	68.0	51	85.0	85	77.3	
Whether to sign up for funeral goods	Yes	7	14.0	12	20.0	19	17.3	0.407
	No	43	86.0	48	80.0	91	82.7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Positive	1	2.0	3	5.0	4	3.6	0.373
	Negative	38	76.0	49	81.7	87	79.1	
	Don't know	11	22.0	8	13.3	19	17.3	
Intention to purchase funeral insurance	Unwilling	38	76.0	44	73.3	82	74.5	0.832
	commonly	8	16.0	13	21.7	21	19.1	
	Willing	4	8.0	3	5.0	7	6.4	
The necessity of funeral goods, funeral insurance, farewell trips, and memorial goods	Need	1	2.0	5	8.3	6	5.5	0.346
	Not need	41	82.0	46	76.7	87	79.1	
	Don't know	8	16.0	9	15.0	17	15.5	

p-value calculate by  $\chi^2$ -test

Table 3. Recognition of funeral culture according to age

unit : N, %

		65-74		75-84		Total		p-value
		N	%	N	%	N	%	
Funeral method	Burial	16	21.9	9	24.3	25	22.7	0.776
	Cremation	57	78.1	28	75.7	85	77.3	
Reason to burial preference	Traditional funeral method	4	25.0	3	33.3	7	28.0	0.906
	Family cemetery	8	50.0	4	44.4	12	48.0	
	Feng-Shui idea	1	6.3	1	11.1	2	8.0	
	Reluctance to cremation	3	18.8	1	11.1	4	16.0	
Reason to cremation preference	Difficulty buying a cemetery	7	12.3	0	0.0	7	8.2	0.012
	Efficient use of the country	15	26.3	2	7.1	17	20.0	
	Environmental conservation	6	10.5	1	3.6	7	8.2	
	Convenience of management	25	43.9	23	82.1	48	56.5	
	Low cost	4	7.0	2	7.1	6	7.1	
Maintenance of ashes after cremation	Ossuary cemetery	28	49.1	12	42.9	40	47.1	0.753
	Family ossuary cemetery	11	19.3	7	25.0	18	21.2	
	Tree funeral	11	19.3	7	25.0	18	21.2	
	Mountain funeral	7	12.3	2	7.1	9	10.6	
Necessity to sign up for funeral goods	Need	18	25.0	11	29.7	29	26.6	0.597
	Not need	54	75.0	26	70.3	80	73.4	
Reasons for not sign up for funeral goods	Not need	28	45.9	12	40.0	40	44.0	0.411
	Cost burden	13	21.3	11	36.7	24	26.4	
	Risk of bankruptcy of mutual aid companies	19	31.1	7	23.3	26	28.6	
	Service dissatisfaction	1	1.6	0	0.0	1	1.1	

p-value calculate by  $\chi^2$ -test

Table 4. Recognition of funeral culture industry according to age

unit : N, %

		65-74		75-84		Total		p-value
		N	%	N	%	N	%	
Intention to conduct funeral ceremonies after streamlining the funeral	Yes	39	53.4	16	43.2	55	50.0	0.313
	No	34	46.6	21	56.8	55	50.0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Positive	4	5.5	0	0.0	4	3.6	0.238
	Negative	55	75.3	32	86.5	87	79.1	
	Don't know	14	19.2	5	13.5	19	17.3	
Reasons for having a negative attitude towards funeral while alive	Unfamiliar	13	23.6	12	37.5	25	28.7	0.375
	Take death lightly	17	30.9	11	34.4	28	32.2	
	Commercial event	13	23.6	4	12.5	17	19.5	
	Funeral held again after death	12	21.8	5	15.6	17	19.5	
Intention to conduct funeral while alive	Yes	3	4.1	0	0.0	3	2.7	0.358
	No	59	80.8	33	89.2	92	83.6	
	Don't know	11	15.1	4	10.8	15	13.6	
Intention to take farewell trips	Yes	12	16.4	1	2.7	13	11.8	0.104
	No	46	63.0	28	75.7	74	67.3	
	Don't know	15	20.5	8	21.6	23	20.9	
Intention to purchase farewell trips products	Yes	1	1.4	0	0.0	1	0.9	0.474
	No	72	98.6	37	100.0	109	99.1	
Intention to sign up for funeral insurance	Somewhat	10	13.7	5	13.5	15	13.6	0.962
	commonly	45	61.6	22	59.5	67	60.9	
	Few	13	17.8	8	21.6	21	19.1	
	Not at all	5	6.5	2	5.4	7	6.4	
Intention to get a consultation on life and death	Yes	9	12.3	4	10.8	13	11.8	0.816
	No	64	87.7	33	89.2	97	88.2	

p-value calculate by  $\chi^2$ -test

Table 5. Opinions on the memorial service according to age

unit : N, %

		65-74		75-84		Total		p-value
		N	%	N	%	N	%	
Intention to turn to religion when a memorial service held by religious organization	Somewhat	10	13.7	9	24.3	19	17.3	0.422
	Commonly	50	68.5	23	62.2	73	66.4	
	Few	11	15.1	5	13.5	16	14.5	
	Not at all	2	2.7	0	0.0	2	1.8	
Intention to purchase products when a memorial service is held by a memorial company	Somewhat	11	15.1	7	18.9	18	16.4	0.818
	commonly	53	72.6	27	73.0	80	72.7	
	Few	8	11.0	3	8.1	11	10.0	
Willingness to pay funeral expenses for funerals while alive, farewell trips, and memorial services after reducing funeral expenses	Not at all	1	1.4	0	0.0	1	0.9	0.358
	Yes	3	4.1	0	0.0	3	2.7	
	No	59	80.8	33	89.2	92	83.6	
Necessity of funeral goods, funeral insurance, farewell trips, and memorial goods	Don't know	11	15.1	4	10.8	15	13.6	0.380
	Need	5	6.8	1	2.7	6	5.5	
	Not need	55	75.3	32	86.5	87	79.1	
	Don't know	13	17.8	4	10.8	17	15.5	

p-value calculate by  $\chi^2$ -test

Table 6.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according to average monthly income

unit : ten thousand won/ n(%)

		100 or less	100-200 or less	200-300 or less	Over 300	Total	p-value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Positive	0(0.0)	0(0.0)	4(11.8)	0(0.0)	4(3.6)	0.004
	Negative	15(83.3)	21(70.0)	23(67.6)	28(100.0)	87(79.1)	
	Don't Know	3(16.7)	9(30.0)	7(20.6)	0(0.0)	19(17.3)	

p-value calculate by  $\chi^2$ -test

Table 7.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according to religion

unit : N, %

		Religion		No religion		Total		p-value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Positive	3	4.5	1	2.3	4	3.6	0.020
	Negative	57	86.4	30	68.2	87	79.1	
	Don't Know	6	9.1	13	29.5	19	17.3	

p-value calculate by  $\chi^2$ -test

Table 8. Recognition of funeral culture industry according to recognition of death

unit : N, %

		Yes		No		Total		p-value
The need for well-aging education	Need	19	25.0	2	5.9	21	19.1	0.051
	Not need	34	44.7	17	50.0	51	46.4	
	Don't Know	23	30.3	15	44.1	38	34.5	
Preferred funeral method	Burial	17	22.4	8	23.5	25	22.7	0.893
	Cremation	59	77.6	26	76.5	85	77.3	
Whether to sign up for funeral goods	Yes	18	23.7	1	2.9	19	17.3	0.008
	No	58	76.3	33	97.1	91	82.7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Positive	3	3.9	1	2.9	4	3.6	0.852
	Negative	59	77.6	28	82.4	87	79.1	
	Don't Know	14	18.4	5	14.7	19	17.3	
Intention to purchase funeral insurance	Few	58	76.3	24	70.6	82	74.5	0.730
	Commonly	13	17.1	8	23.5	21	19.1	
	Somewhat	5	6.6	2	5.9	7	6.4	
Necessity of funeral goods, funeral insurance, farewell trips, and memorial goods	Need	3	3.9	3	8.8	6	5.5	0.482
	Not need	60	78.9	27	79.4	87	79.1	
	Don't Know	13	17.1	4	11.8	17	15.5	
Intention to turn to religion when a memorial service held by religious organization	Somewhat	7	9.2	12	35.3	19	17.3	0.004
	Commonly	53	69.7	20	58.8	73	66.4	
	Few	14	18.4	2	5.9	16	14.5	
	Not at all	2	2.6	0	0.0	2	1.8	
Intention to purchase products when a memorial service is held by a memorial company	Somewhat	8	10.5	10	29.4	18	16.4	0.092
	Commonly	59	77.6	21	61.8	80	72.7	
	Few	8	10.5	3	8.8	11	10.0	
	Not at all	1	1.3	0	0.0	1	0.9	
Willingness to pay funeral expenses for funerals while alive, farewell trips, and memorial services after reducing funeral expenses	Yes	2	2.6	1	2.9	3	2.7	0.092
	No	60	78.9	32	94.1	92	83.6	
	Don't Know	14	18.4	1	2.9	15	13.6	

p-value calculate by  $\chi^2$ -test

### 3.6 월평균 가구 소득별 생전 장례식에 대한 의견

월평균 가구 소득별 생전 장례식에 대한 의견은 Table. 6과 같다. 장례문화 산업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에서 소득별 유의한 차이( $p=0.004$ )가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나타났다.

### 3.7 종교 유무별 생전 장례식에 대한 의견

종교 유무별 생전 장례식에 대한 의견은 Table. 7과 같다. 장례문화 산업에 대한 종교 유무에 따라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 $p=0.02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경향에 대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이 종교가 없는 응답자들의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나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8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의 장례문화 인식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의 장례문화 인식은 Table. 8과 같다. 상조상품 가입 및 종교단체에서 추모식 진행시 종교 귀의 의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항목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이 상조상품에 가입( $p=0.008$ ) 했다고 응답한 분포가 높았으며,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이 종교단체에서 추모식 진행시 종교 귀의 의향( $p=0.004$ )이 다소 있다고 응답한 분포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4. 논의

본 논문 연구와 꺾림결과를 교차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장례문화 인식을 성별로 살펴보면 첫째, 선호하는 장례방식은 '화장(77.3%)', '매장(22.7%)' 순이며, 여성(85.0%)이 남성(68.0%) 대비 '화장'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화장 선호이유에 대해서는 '관리의 편리함(56.5%)', '국토의 효율적 이용(20.0%)', '묘지 구입의 어려움 및 환경 보전(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5-84세가 65-74세 보다 더 높은 비율로 '관리의 편리함'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

성이 화장을 더 선호하는 것은 유교적 매장문화에서 오는 묘지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화장선호 이유에 대해 '관리의 편리함'이 높게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생전장례식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생전장례식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장례식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비율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전장례식 진행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장례식 적합 장소는 '병원(66.7%)', '집(3.3%)'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가구소득 별로는 생전장례식에 대해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분에서 긍정적인 면이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11.1%)가 '100만 원 이상'인 응답자 대비, 전반적 건강상태가 '나쁜 편'인 응답자(13.3%)가 '좋은 편'인 응답자(2.1%) 대비 생전장례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른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은 종교인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례식은 죽음 이후에 발생된다는 점에서 볼 때 생전 장례식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죽음을 앞둔 자가 직접 장례를 주재하고 참여자들과 이별을 고한다는 점, 복장이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된 일본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도 웰다잉 차원에서 생전장례식의 진행 가능성에 대한 장례문화 인식변화가 예견되는 부분이다.

셋째, 추모식에 대해서 연령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흥미로운 점도 발견된다. 종교단체에서 추모식을 진행할 경우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의견은 17.3%로 나타났으며, 추모 사업체에서 추모식 진행시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다소 있다'가 16.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유교의 제사문화 영향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자신은 죽더라도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추모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노인들의 종교귀의는 웰다잉의 준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점을 보이고 있다[12].

넷째,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에서 상조상품 가입을 했다고 응답한 분포( $p=0.008$ )가 높았다.

반면에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에서 종교단체 추모식 진행시 종교 귀의 의향이 다소 있다( $p=0.004$ )고 응답한 분포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들이 생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웰다잉의 준비와 실천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13].

다섯째, 임종과 이별이 예측되는 상황 시, 삶과 죽음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의향에 대해 웰에이징 '인지자(40.0%)'는 '비인지자(10.5%)' 대비, 상조상품 '가입자(31.6%)'는 '미가입자(7.7%)' 대비 전문가 상담의향이 '있다(예)'고 응답하였다. 상담 희망 내용은 1순위 기준으로 '장례절차(61.5%)'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23.1%)',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7.7%)', '자서전 작성(7.7%)'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장례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노인들 죽음준비 교육내용에 담아내야 한다고 판단된다.

기타로 상조상품 미가입에 대해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400만원 미만 대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별여행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들의 장례문화 인식과 변화를 유발하는 주요인들은 성별, 소득수준, 종교, 죽음에 대한 고민 여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장례문화에서 화장은 여성이 남성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전장례식은 아직은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장례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병원을 생전장례식 장소로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죽음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말기 암환자의 경우 웰다잉 차원에서 자신들의 삶을 능동적으로 스스로 마무리하려는 새로운 장례문화 또는 죽음문화에 대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이다. 종교인의 경우 생전장례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은 생전장례식이 종교적인 죽음 관에 위배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전통 제사와 같은 추모식을 의미 있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모식을 진행할 경우 종교단체에 귀의하거나 추모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방

식인 유교 제사의 경우 기독교인들도 우상승배라고 거부하기보다는 고인을 추도한다는 의미에서 추도예배(추도식)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인식 여부가 웰에이징, 웰다잉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조상품 가입 비율, 종교단체 귀의, 생전장례식, 죽음 전반에 대한 상담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매장을 선호하고, 이별여행 의향이 높고, 상조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죽음관과 장례문화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장례문화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해 부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지만 향후 장례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사점도 보여주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년기의 증가로 웰에이징 문제 해결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웰다잉을 위한 '생전장례준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14].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 상조가입, 추모식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장례문화 변화도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례비용의 측면에서 생전장례식, 가족들과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써 이별여행에 대한 가능성 등을 보여주고 있다.

웰에이징 시대에 맞는 한국의 장례문화사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화장 문화 정착에 따른 장례문화를 제시해야 한다. 매장이 아닌 화장 문화가 만연되면서 화장한 유골을 안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장례의 산업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시대가 지속되면서 상조업, 생전장례식, 장례보험, 추모 상품, 이별여행 상품의 출시와 구매가 예측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15]. 셋째,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의 웰다잉 문화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화, 핵가족화 시대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장례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래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장례 및 유언, 상속 등의 종활(終活, 슈카즈)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16].



## 5. 결론

본 논문은 노인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수시대, 웰에이징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장수시대, 고령화 시대에 따른 웰에이징, 웰다잉의 문제, 2000년대 이후 급격한 화장률의 증가에 따른 장례문화의 변화, 그리고 핵가족화와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노인들은 화장을 한국의 대표적인 장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살아 있을 때 생전장례식을 진행하는 것, 미래 자신들의 장례 진행을 위해 생전에 추모상품 구입과 종교에 귀의, 상조상품 구입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령화, 장수시대 노인들의 장례문화 인식변화는 자신의 죽음과 장례에 '생전준비'로 요약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장례문화인식 변화에서 화장은 여성이 선호했다. 생전장례식 진행의향은 소득수준과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소 죽음에 대한 생각 여부는 상조상품 가입과 추모식 진행 시 종교단체 귀의 의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는 장례문화산업에 대한 방향과 정책 제시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학제간의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제한되었다는 점 때문에 전국적인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전국단위의 설문대상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방안과 현재 진행된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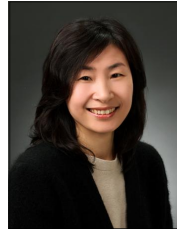
## REFERENCES

- [1] M. S. Kim. (2020). Mandatory Retirement, Ageism, Well-aging. *Studies on Life and Culture*, 58, 25-45. DOI : 10.17924/solc.2020.58.25.
- [2] G. H. Kim & Y. H. Park. (2020). Concept Analysis of Well-dying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7(3), 229-237. DOI : 10.5953/JMJH.2020.27.3.229
- [3] B. K. Kwon. (2013). Koreans' Traditional View on Death.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6(3), 155-165. DOI : 10.14475/kjhpc.2013.16.3.155
- [4] K. S. Hwang, H. J. Bae, Y. E. Choi, & J. L. Kim. (2015). A Comparative study of the funeral culture according to an aging societ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1), 69-72. DOI : 10.17703/JCCT.2015.1.1.69
- [5] J. S. No. (2018). The Study of Hotel Funerals in Japanese Society.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77, 361-378. DOI : 10.18631/jalali.2018..77.020
- [6] C. S. Kim. (2017). History of Funeral Culture in Germany-Focused on Death Awareness and Funeral Culture. *Korean Journal of German Studies*, 36, 5-41. DOI : 10.17995/kjgs.2017.11.36.5
- [7] C. H. Lee, S. Y. Ahn, Y. H. Kim, & K. H. Kim. (2019). Convergence Research on Relationships among the inhibiting factors of Dying Well.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8), 7-44. DOI : 10.15207/JKCS.2019.10.8.037
- [8] K. H. Chang, M. J. Kim, S. H. Kim, A. R. Park, S. Y. Ahn, & K. H. Kim. (2021). A study on the expansion of culture industry and establishment of industrialization of well-dying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5), 321-331. DOI : 10.14400/JDC.2021.19.5.321
- [9] P. D. Lee & H. W. Kim. (2018). Awareness of Funeral Culture and Well-Ending and Policy Implications-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4), 67-75. DOI : 10.17703/JCCT.2018.4.4.67
- [10] H. W. Kim. (2019). A study on regional gender differences in cremation. *Korean Thought and Culture*, 100, 647-673. DOI : 10.31037/KTAC.100.20
- [11] H. J. Park. (2021). Trauer- und Bestattungskultur in Deutschland-Zur Entwicklungsgeschichte der Trauerkultur und des modernen Totengedankens. *Deutsche Sprach- und Literaturwissenschaft*, 93, 25-49. DOI : 10.24830/kgd.29.2.2
- [12] H. N. Lim & K. H. Kim. (2019). A study on how elderly people are preparing for dying wel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9), 432-439. DOI : 10.5762/KAIS.2019.20.9.432
- [13] D. R. Kim, S. H. LEE, S. Y. Ahn, Y. H. Kim, C. H. Lee, & K. H. Kim. (2019). A Study on Dying Well Education Needs of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9), 270-278. DOI : 10.5762/KAIS.2019.20.9.270

- [14] H. D. Song, M. J. Kim, G. Y. Jo, K. H. Chang, & K. Hwan. Kim. (2021). Convergence Study on Koreans' Recognition of Funeral Culture Industry and Development Pla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7), 113-123.  
DOI : 10.15207/JKCS.2021.12.7.113
- [15] H. S. Ko. (2021). A Study on Change of Mutual Aid Business and Consumer Protection. *JURIS* 1(55), 617-663.  
DOI : 10.22825/juris.2021.1.55.015
- [16] J. Y. Yang. (2018). Perspectives of the Life-and-Death Studies on Syukatu in Jap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5, 1201-1214  
DOI : 10.22143/HSS21.9.5.85

구 진 희(Jin-Hee, Ku)

[장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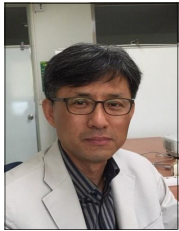


- 2001년 : 충남대학교 컴퓨터과학교육 석사
- 2010년 : 동 대학원 공업(컴퓨터)교육 박사
- 2010년 ~ 현재 : 목원대학교 소프트웨어교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컴퓨터교육, 소프트웨어공학, 웰에이징

· E-Mail : jhku@mokwon.ac.kr

송 현 동(Hyeon-Dong Song)

[장학원]



- 2006년 2월 : 한국학중앙연구원(철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문화관광, 웰니스관광, 죽음학, 종교문화
- E-Mail : ritual@konyang.ac.kr

김 설 희(Seol-Hee Kim)

[장학원]



- 2005년 3월 : 조선대학교(보건학석사)
- 2009년 3월 : 조선대학교(보건학박사)
- 2010년 3월 ~ 2014년 2월 :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보건학, 교육학, 웰에이징

· E-Mail : ableksh@konyang.ac.kr

김 광 환(Kwang-Hwan Kim)

[중산학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보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웰에이징
- E-Mail : kkh@konyang.ac.kr